

# 중국의 한국어학과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통합 교재 개발 연구

- 기존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

( 북경대 )

. **2012. The Development of Korean integrated textbooks for advanced Learners of Chinese Korean language Department.** This research is abou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eaching materials used in China, which is based on the theory of materials compiling in teaching and the educational concep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making suggestions for the compiling and development of advanced teaching materials for the learners of Korean. First, in Chapter 2, it is explained that integrated Korean education is also necessary for advanced learners and in terms of setting up standards for compiling teaching materials,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advanced learners.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aims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integrated Korean teaching materials for advanced learners, which is based on the teaching goals of Korean study. In Chapter 3, the properties mentioned above will be showed by the common standard of analysis of teaching materials and the evaluation items for integrated Korean teaching materials will also be given out. In Chapter 4, according to the evaluation standard mentioned before, the structure, system, language factors and study activities of 6 kinds of integrated teaching materials currently used in China will be analyzed. In the part of conclusion, specific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integrated teaching materials will be given out based on analysis above.

Key words: 중국인 학습자(Chinese Korean learners),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advanced integrated Korean teaching materials), 고급 단계 학습(자)의 특징(the characteristics of advanced learners), 통합 교재 당위성(the necessary of the integrated Korean teaching materials), 기존 교재 분석(analysis of

## 1. 서론

본 연구는 교재론 및 통합 교육론에 근거하여 중국 내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급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 필요한 고급 한국어 교재<sup>1)</sup>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어 통합 교재란 통합적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는 교재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 초·중급 통합 교재의 개발이나 번역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고급 통합 교재의 개발이나 번역 유입 작업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고급 통합 교재는 4종(8권)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sup>2)</sup> 이는 고급 통합 교재 개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급 통합 교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풀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언어 기능 훈련을 해야 하는 고급 단계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통합적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는 통합 교재는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한편, 고급 한국어 교재 편찬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고급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는 총 23편 정도인데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6편에 불과하다. 그리

---

\* 본 논문은 2014년 5월 24-25일 중국 천진에서 열린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 학회 2014년도 국제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중국 4년제 대학교 3, 4학년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가리킨다.

2) 게다가 이들 교재는 초기에 시도한 성과인 만큼 실제 교수-학습에 맞지 않거나 하는 문제점을 적지 않게 안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교에서 담당 교수가 이들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 온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리고 이런 경우, 담당 교수, 특히 단기 파견으로 중국 현지에서 와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수업 준비의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의 비체계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고 이 6편 가운데 통합 교재에 관한 연구는 김정우(2012), 胡夢妤(2013) 2편에 불과한 실정이다.<sup>3)</sup>

이처럼 고급 단계 한국어 교수-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통합 교재를 개발하는 실제 작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에 관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당위성 및 성격

고급 단계에서는 통합 수업 대신에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번역하기의 다섯 가지 기능대로, 그리고 문학, 문화, 철학, 경제 등의 영역별로, 문법, 국어학 등의 지식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렇게 수업 배정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통합 교재가 과연 개발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소위 통합 교재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 교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통합 교재 개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통합 교재의 당위성 및 통합 교재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분명해지면 기존 통합 교재에 관한 분석 작업을 위한 분석 기준도 마련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고급 단계 학습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교재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2.1. 고급 단계 학습의 특징

고급 단계 학습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보다 튼튼하고 완벽한 의사소통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고급 단계 학습자도 체계적 언어 기능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이론적으로도 실천적

---

3) 이 통계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http://www.riss.kr))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결과이다.

으로도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다.

우선, chomsky의 이론에 의하면 언어 능력은 초기의 미숙 상태에서 보다 완벽하고 안정된 상태로 변해 가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李楊, 1993:50).<sup>4)</sup> 한편, 심리언어학에서 외국어를 습득 하면서 모국어의 언어 습관 및 문화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어 학습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실제 교수-학습에서도 고급 단계 학습자에게도 체계적 기능 훈련을 시켜야 함이 입증된 바 있다. 미국의 FSI(Foreign Service Institute)에서 진행된 언어 강화 교수-학습 결과에 따르면, 청화식 교수법으로 훈련시키는 데 가장 좋은 조건에서 학습 동기가 비교적 강하고,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라도 선생님과 마주 앉아 800 내지 2000 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만 외국어를 큰 불편 없이 사용하는 능숙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sup>5)</sup> 그러나 중국의 경우, 한국어 학과에서 매 학기 한국어를 학습하는 시간은 대략 200시간이고, 2년간을 진행할 경우 총 800시간쯤 된다. 그리고 반마다 학생 수는 15명 정도 된다(일부 학교는 20-30명 및 그 이상이 된다). 15명 학생은 총 800시간을 나눠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능숙한 언어 능력을 습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sup>6)</sup>

---

4)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형성되어 가는 초급 단계, 의사소통 능력이 능숙해지는 중급 단계, 언어 지식으로부터 언어 습관, 언어 수행으로 전환해 가는 고급 단계의 세 단계로 나뉜다. 이것은 4년제 대학 교육에서 말하는 초, 중, 고급이란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4년제 대학 교육의 초, 중, 고급이란 개념은 4년이라는 기간을 정도에 따라 나눠 보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5) 여기서 그가 말하는 능숙한 수준은 “외국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현지 언어를 널리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수준”이다(李楊, 1993: 51).

6) 이밖에 對外漢語학과의 교수-학습에서의 장기적인 실천 경험도 좋은 예증이 된다. 중국이라는 아주 좋은 언어 환경 속에서 매주 20여 시간씩 수업을 받는 학생(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2년 동안에 중국어를 능숙하게 습득할 수가 없었고, 고급 단계인 3, 4학년에 이르러도 바로 문화 전공 학습을 하

이상으로 보아 언어 지식을 언어 수행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1, 2학년의 학습만으로 이를 수 없고 고급 단계에서도 이러한 전환을 계속 진행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고급 단계 한국어 교수-학습은 역시 체계적 기능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 고급 단계 학습자는 기계적 기능 훈련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주제나 텍스트를 선정해야 하고, 토론, 발표 등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고안해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언어를 창의적으로 유창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어감(語感)교육<sup>7)</sup>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언어가 창조적인 것이고, 교실에서 교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만큼 어감을

기는 어려웠다.(劉珣 외, 1997:16) 따라서 언어 학습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외국에서 매주 수업 시간이 20시간도 안 되는 중국의 한국어 학과 학생이 이보다 더 빨리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7) 어감교육은 수천 년을 거쳐 형성해 온 중국 어문교육의 우수한 전통이지만 어감이란 개념은 현대에 와서야 분명하게 제기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어문교육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語感'이란 개념을 명확히 제기해 놓은 사람은 夏丐尊이고, 夏丐尊 이후, 특히 90년대 이래 語感을 연구한 학자마다 각기 다른 시각에서 語感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語感은 言語(말문을 의미하고 구두 言語와 서면 言語를 포함)에 대해 민첩하게 감지하고 신속히 깨닫는 능력으로 語音과 문자 부호에 대한 느낌뿐 아니라 감지, 이해, 정서 체험을 포함하는 言語활동 과정도 동시에 포함한다. 語感의 심리적 요소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語感은 감지부터 시작하여 표상, 지각, 기억, 연상, 상상, 정서, 사고 등의 복잡한 심리 요소들이 전 과정에 포함된다. 또 語感의 구성 요소를 놓고 말하자면, 어감은 어음 감각, 언어 의미 감각, 문법 감각, 활용 감각 등으로 구성된다(王松泉·王柏勛·王靜義(2001:46-47)). 語感의 특징은 직각성(直覺性), 통합성(整體性), 개인적[個人性], 감정적[情感性], 민첩함[敏捷性], 경험적[經驗性], 창의성[創造性], 모호함[模糊性], 연상적[聯想性]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徐雲知(2004:27-32), 王松泉·王柏勛·王靜義(2001:48-51), 任群英(2003: 2~7), 鄧明菁(2004: 6~9), 趙燕(2004:2~10), 張徵(2003: 31~33)). 이상의 논의는 남연(2010:436)을 참조했다.

키움으로써 그 감으로 언어를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구상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sup>8)</sup>

셋째, 고급 단계의 학습자는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 관계로 초·중급 단계처럼 언어 요소에 비중을 많이 두거나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고 기초적이며 일상적인 문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언어 요소도 중요시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다양한 내용, 정신문화, 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학습자의 지적 수준에 어울리는 내용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어능력 시험(TOPIK)에서 명시하는 5급과 6급의 등급 특성과도 일치한다. 김정우(2012: 154-155)는 1급에서 4급까지의 특성과 비교해 보고 5급과 6급의 특성을 크게 '전문적인 언어활동'<sup>9)</sup>, '친숙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sup>10)</sup>, '문학 작품을 향유하는 언어활동'<sup>11)</sup>으로 정리하였다. 전문적 내용, 친숙하지 않은 내용, 문학작품, 이 세 가지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고차원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징은 상대적으로 고차원적인 내용을 담는 주제나 텍스트를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급 단계 한국어 교수-학습에서 교재 집필진에 의해 제작한 내용이 아닌 원문을 다뤄야 한다는

---

8) 모국어 교육이든 외국어 교육이든 모두 언어교육이라는 공통점을 고려한다면, 중국 어문교육에서 강조해 왔던 어감교육의 중요성을 참조해 볼 만하다. 어감교육의 중요성은 어감이 모든 언어활동의 필수적인 전제라는 점을 통해 엿볼 수 있고, 감성적인 학습 방식으로 습득하는 모국어 학습 과정을 통해 엿볼 수도 있다. 지면 관계 상 구체적 논의는 생략하고 남연(2010: 437-438)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9) 전문 분야는 학문 목적 한국어, 직업 목적 한국어 등을 가리키며, 주로 각 전문 분야의 어휘, 담화 양식, 문화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스스로 그러한 언어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0) 이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차이 등에 관련된 언어활동을 할 때에도 일정한 수준에서 추론을 하거나, 이미 그러한 낯섦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 배경 지식 등을 함께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11) 원어민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문학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를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음을 뜻한다.

것을 요구하게 된다. 한국어를 학습하게 하기 위해 교재 집필진에 의해 일부러 제작한 글은 언어 상, 정서 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풍부하지 못할 수 있다. 교재 집필진이 제작한 글이 아닌, 한국인이 쓴 원작이야말로 자연스러운 한국어, 한국어의 아름다움, 한국어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

넷째, 고급 단계에 올라와서는 어휘 수량의 대폭 증가, 학습 자료의 난해 등 이유로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고민이 심각해진다. 저학년일 때와 달리 고급 단계에 올라와서는 교재 집필진에 의해 제작한 글이 아닌 한국인이 직접 쓴 글(문학 작품, 평론, 수필, 연극 대본 등)을 상대하게 되어, 그 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대량의 어휘, 낯선 언어 구사 방식, 낯선 문화적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습자가 고급 단계의 학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방법 차원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기존의 교재에는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문법 항목이나 표현만을 목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학습 목표라 할 수 없다. 언어의 학습 목표란 적어도 언어의 다섯 가지 기능에 관한 목표, 언어 지식에 관한 목표, 문화 학습 목표, 자료 내용이나 문화에 대한 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학생들이 지향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자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저학년일 때는 기초를 닦는 단계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겠지만, 고급 단계에 올라와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 강의실에서 교수가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고급 단계의 학습 특징에 맞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 방법을 터득해서 자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물론 학습자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수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여섯째, 높은 단계에 올라갈수록 각 언어 요소의 등급화 체계가 모호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고급 단계의 교수-학습 내용은

언어 요소의 순차성에 따라 설정하기보다는 본문 내용과 여러 형식에 대한 필요를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교수-학습 내용을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李楊1993:56 재인용) 즉 내용과 형식을 기본적 선택 기준으로 하되 동시에 언어 요소의 난이도를 고려하면서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2.2.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필요성

통합 교재는 통합적 언어 교육을 지향하는 교재이다. 통합적 언어 교육의 개념과 층위에 대해서 학자마다 정의하는 바가 달라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한(외)국어 교육이든 모국어 교육이든 모두 언어교육이라는 공통점을 고려해 보면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이 보다 시사적이라고 본다. 통합적 국어교육은 크게 영역 간의 통합과 기능 간의 통합을 말한다. 전자는 언어 사용 기능과 국어 지식과의 통합, 언어 사용 기능과 문학의 통합을 의미하며, 후자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언어 사용 기능과 국어 지식과의 통합, 언어 사용 기능과 문학과와의 통합도 실은 국어 지식 습득과 문학 작품 향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어 사용 기능간의 통합인 것이다.<sup>12)</sup> 그래서 통합적 국어교육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언어 기능들 간의 유기적인 관련을 강조하여 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좀 더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학습자의 총체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다.(이재승, 2006: 181)

이와 같은 개념 규정은 한국어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통

12) 이재승(2006: 178-181)에서는 언어활동의 양상인 언어 사용 기능, 국어과의 내용인 국어 지식과 문학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므로, 통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문학과 읽기, 문법과 쓰기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읽기 활동과 쓰기 활동을 설계할 수 있고, 문법 요소를 가르치기 위해 쓰기와 말하기 등의 기능을 동시에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결국 언어 사용 기능 간의 통합인 것이다. 한편, 임미성(2002:15-23)에서 국어교육의 통합 방법으로 국어 사용 기능 간의 통합, 국어 사용 기능과 국어 지식의 통합, 국어 사용 기능과 문학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와 비슷한 논리다.



합적 한국어 교육은 한정적이거나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네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언어의 형태보다 내용을 강조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인식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정운규, 2013: 28). 그리고 대상국이 아닌 외국에서 진행되는 외국어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번역하기 기능을 추가하여 말하기·듣기·읽기·쓰기·번역하기 다섯 가지 기능의 통합 교육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의 각 기능은 유기적이므로 상호 간섭이 이루어진다.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외국어 교육과 (모)국어 교육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sup>13)</sup> 1960년대 초 Goodman과 Smith에 의해 처음 시도된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은 그 이후에 점차 언어 교육 전반으로 확대되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Edelsky(1986)와 Hudson(1989)은 언어의 네 기능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므로 통합적 언어 교육은 학습 잠재력을 신장시킨다고 하였으며(김현숙, 2009 재인용), Freeman(1992)에서도 음성 언어가 구두 언어의 발달을 촉진시켜 주며, 듣기·말하기·쓰기·읽기 과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므로 이 네 가지 기능은 교실 수업 활동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서진아, 2008:21 재인용). McDonough & Shaw(2000)는 수업이 실제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언어 기능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므로 네 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진아, 2008: 20 재인용). Brown(2007: 286)에서도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실생활에서 통합적으로 쓰이는 언어 기능들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 언어 기능간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며, 교사에게는 흥미롭고 동기를 유발하는 수업을 구안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기철(2004)에서도 언어 기술들이 통합돼야 하는 이유를 6가지로 들고 있다.<sup>14)</sup>

13) 이하의 논의는 정운규(2013:28-31)를 참조했다.

14) 그 8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듣고 읽기의 이해와 말하고 쓰기의 생성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 나. 상호교섭이란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이다.

그리고 (모)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도영(1998)은 '언어 사용의 실제', '언어 사용의 심리적 과정', '교수 학습의 효율성', '언어 사용의 이상'으로 언어 기능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재승(2004, 2006)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할 때 언어 교육의 자연성(natural), 전체성(whole), 의미성(meaningful), 실제성(authentic), 활동성(activity), 효과성(efficient) 등을 좀 더 단단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합적인 국어 교육을 강조할 때, 분리된 언어가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대로의 언어를 가르칠 가능성이 높으며, 작은 단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단위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고, 문법과 같은 형식적 요소보다 내용(의미)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기능 지도의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 신헌재·이재승(1997:59)에서 언어 기능 간에는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 언어 기능 간은 서로 보완적이라는 점, 실제 언어 사용 과정에서 이들 언어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상황 속에서 언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 수업의 경제성 면에서 통합함으로써 학습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언어 기술들이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증해 준 바도 있다.<sup>15)</sup> 연구에 따르면 텍스트를 많이 읽는 것은 쓰기 능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독서를 많이 한 학습자일수록 쓰기와 관련된 언어적 특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Scott, 1996). 즉, 텍스트를 많이 읽는 것은 담화의 특성

- 
- 다. 구어체와 문어체는 보통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 라. 글을 아는 학습자에게 있어, 구어체와 문어체의 상관관계는 언어와 문화, 사회가 반영된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 마. 언어의 형태는 이차적 관심만 기울이고 언어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교실 수업에 관련된 언어의 네 가지 기술을 모두 중시한다.
  - 바. 보통 한 가지 기술은 다른 기술을 강화시킨다. 듣는 것을 모델로 해서 말하기를 학습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을 점검해서 쓰기를 학습한다.

15) 이하의 논의는 김인에(2012:29-30)를 참조했다.

과 언어와 문화의 연결 관계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Kren & Shultz(1992)는 읽기 자료를 통합한 쓰기 지도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학생들에게 모델 작문을 읽고 그 글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작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을 때 학생들 작문의 전반적인 질(quality)과 구문의 복잡성(syntactic complexity)에 의미 있는 향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어휘 지식과 작문의 질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Koda 1993). 학습자의 어휘 지식은 효과적인 작문을 산출하는 학습자의 능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Shultz(1994)는 구문의 복잡성이 작문의 질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구문의 복잡성은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고 그 자체를 생성하는 도구로 복잡한 문장을 산출할 수 있는 학생일수록 수준 높은 작문을 산출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언어 기능 통합 교육(통합적 언어 교육)은 초·중급 단계 학습자는 물론 고급 단계 학습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앞서 고급 단계 학습의 특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급 단계 학습자에게도 역시 언어 기능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기능 훈련이 필요한 이상, 언어 기능 훈련을 위한 방법으로 각 언어 기능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각 언어 기능을 아울러서 교육시키는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위한 교수법 개발은 물론이고, 관련 통합 교재의 편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3.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성격

고급 단계 학습(자)의 특징 및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서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그러나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학과의 교육목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통일된 목표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훌륭한 한국어 의

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한국학 관련 전문 지식(한국 문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한국어학과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성 교육(인성 함양)이라는 점과, 다양성과 복잡성에 뿌리를 둔 지식 정보화 사회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지성과 창의력(창의적 사고력)과 지혜를 갖춘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학 분야의 기능적인 인재의 양성은 단지 일차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무엇보다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건전한 인성과 창의력(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어학과의 교육 목표는 일차적인 목표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창의력 신장에 치중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하는 것까지 심화되어야 한다.<sup>16)</sup>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성격을 다음 몇 가지

- 
- 16)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인성 교육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차적인 목표에만 얽매었다가 말만 잘하고 한국 문화 지식만을 잘 아는 기능적인 인간이 육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어는 잘 하지만 생각이 별로 없는 학생, 한국 문화 지식은 줄줄 외우고 있지만 인간애가 결여된 학생,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잘 이해하는데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학생 등이 많이 있다. 물론 인성 교육(함양)은 대학교의 교양과목으로서의 중국(동양, 세계)문학, 중국(세계)철학, 중국(세계)역사, 사상교육과 도덕 수양 등의 과목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성 교육(함양)을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해 두는 것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인성 교육은 어느 한 과목을 통해 완벽하게 함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와 같은 견해는 다소 편협적임을 알 수 있다. 교양과목을 통한 인성 교육과 전공 수업을 통한 인성 교육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지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어학과는 인문계열의 학과인 만큼 인성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 인문정신을 내포한 한국어 자료(특히 문학 자료)를 배움으로써 한국 언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인성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생 문화적 소양 교육 강화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라는 문서에서도 전공 교육에서 인문학적 교육(인성 교육)을 시중일관 관철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전공 수업에서 인성 교육을 함께 실시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내 한국어학과의 교육 목표 재규정의 문제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남연(2011: 261-265)을 참조하기 바란다.

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표1>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성격

분류	내용
편찬 목적	학습자의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 인성교육(인성함양)과 창의적 사고력을 본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이다.
교수 - 학습 방법	(가) 말하기·듣기·읽기·쓰기·번역하기 다섯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키는 언어 기능 통합 교재이다. (나) 어감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재이다. (다) 학습자들이 고급 단계의 학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목표 제시, 자료 및 방법 차원의 지도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교재이다. 가령, 다섯 가지 기능의 구체적 목표 제시, 자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하기, 자료를 공부하는 방법, 절차 등을 예로 들어주기 등이다. (라)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나 방법 차원의 지도가 포함된 교재이다. 가령, 읽을 만한 자료 제시, 자료 공부하는 방법, 절차 등을 예로 들어주기 등이다. (교수-학습 방법)
교재 내용과 구성	(가) 전문 분야의 다양한 내용, 정신문화(성취문화), 전통문화, 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학습자의 지적 수준에 어울리는 내용이 반영된 교재이다. (나) 교재 집필진이 아닌 한국인이 쓴 원작을 수록한 교재이다. (다) 내용과 형식을 기본적 선택 기준으로 하되 동시에 언어 요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한 교재이다.

여기서 교재 편찬 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몇 마디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고급 단계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의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의 본격적 제고에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고급 단계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초·중급 학습자도 이런 의욕이 없지 않을 것이고,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지만, 학습자의 언어 실력 부족으로 이런 교육이 본격화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급 단계의 교육은 초·중급 단계에서 배워 두거나 고급 단계에서 새로 배우는 언어 지식

이나 문법, 어휘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을 본격적으로 제고시키는 단계이며, 교재도 이런 목적을 위해 편찬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교재 편찬의 목적에 따라, 통합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방법론으로 언어 기능 통합 교육과 어감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능별 교육만을 강조하고 기능별 교재만을 대량으로 산출하는 기존의 현황, 그리고 어감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기존의 현황을 감안하여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언어 기능 통합 교육과 어감교육은 단지 일종의 철학적 혹은 이념적 개념이며, 이러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통합 교육의 구체적 유형과 방법에 대한 고안이 필요하다. 구체적 유형과 방법이 분명해져야 목적에 어울리는 하급 활동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기존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비교 분석

#### 3.1. 교재 분석의 기준

교재를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 기준과 항목을 정해야 한다.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분석 기준을 정하는 데에 교재 분석 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참조해야 함은 물론이고, 위에서 밝힌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재 분석 기준에 관한 기존 연구는 민현식(2000), 서종학(2001), 이해영(2001), 박갑수(2002), 황인교(2003), 이지영(2004), 김영선(2006), 엄녀(2007)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기한 분석 기준은 약간씩 다르나 동일한 점도 적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교재 분석을 크게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으로 나눠 진행해 왔지만, 본 연구는 외적 구성보다 내적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외적 구성의 분석 기준은 생략하기로 한다. 기존 학자들의 평가 기준과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표2>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 분석 기준

1. 구성 분석

- ☞ 교재의 전체 구성, 각 단원의 구성, 교재 구성 원리는 어떠한가?
- ☞ 일러두기 혹은 머리말에 학습자의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 인성교육(인성함양)과 창의적 사고력을 본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의 목적과 목표를 밝혀 두었는가?
- ☞ 총 단원 수는 몇 장이고 분량은 어떠한가?
- ☞ 단원 조직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가?
- ☞ 고급 단계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단원의 배열이 학습 단계와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 ☞ 단원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 ☞ 각 단원 앞의 단원 목표에는 언어의 다섯 가지 기능에 관한 구체적 목표, 언어 지식에 관한 목표,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목표, 태도에 관한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주제 선정 이유, 주제에 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는가?
- ☞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단원 구성은 교수-학습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단원 구성에서 자기 진단평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2. 제재 분석

- ☞ 주제(제재)가 고급 단계 학습자의 언어 수준, 연령, 지적 능력에 적합한가?
- ☞ 주제(제재)가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 ☞ 주제(제재)가 학습자의 깊은 사고를 유발하여 학습자의 사고력 및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 ☞ 주제(제재)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 ☞ 주제(제재)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 주제가 다양한가?
- ☞ 성취 문화 중심인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 ☞ 학습자의 인성교육을 위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는가?
- ☞ 각 영역별 전문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문학 작품 향유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현장 적용성(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이 있는가?
- ☞ 성, 인종, 직업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는가?
- ☞ 제재가 교재의 집필진이 아닌 한국인이 쓴 원작인가?

- ☞ 장르가 다양한가?
- ☞ 제재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적당한가?
- ☞ 적절한 제재가 선정되었는가?
- ☞ 제재의 정전성이 있는가?

### 3. 언어 요소 분석

- ☞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 ☞ 문법 설명에 제시된 예문이 적절한가?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 문법 항목에 관한 연습은 네 가지 언어 영역과 연계되고, 실제적인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는가?
- ☞ 문법 항목이 실제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면화 되도록 충분한 연습 활동이 제안되어 있는가?
- ☞ 새 단어로 제시된 어휘의 양과 난이도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가?
- ☞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어휘가 다양하고 충분한가?
- ☞ 어휘 해석 방법은 어떤 것인가?
- ☞ 문맥을 통한 의미 유추를 권장하는가 아니면 단어 해석을 달아 주었는가?
- ☞ 어휘가 실제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면화 되도록 충분한 연습 활동이 제안되어 있는가?
- ☞ 어휘 연습은 네 가지 언어 영역과 연계되고, 실제적인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4. 학습 활동 분석<sup>17)</sup>

- ☞ 학습자 중심, 과제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 유도할 수 있는가?
- ☞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가?
- ☞ 학습자의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개인 및 소그룹 활동, 토론식 활동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 ☞ 어감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나 학습 활동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가?
- ☞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학습 활동이 선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 ☞ 학습 활동이 개인의 경험과 연계될 수 있는가?
- ☞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깊은 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의 다섯 가지 기능이 통합된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17) 학습 활동에 관한 평가 항목으로 언어 기능별 평가 항목들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관련 항목 제시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어감교육은 새로 제안되는 것인 만큼 어감교육을 위한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교재에 어감교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어감교육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관련된 연구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중국의 모국어 교육(어문교육)이나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육에서 주장하는 어감교육의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sup>18)</sup> 단지 여기서 밝혀 두어야 할 것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제기되어 있지만 이들 방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어감교육을 위한 효과적 방법을 결론적으로 정리한 논의가 없으므로 모든 방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어감교육을 위한 효과적 방법을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감교육 이론에 입각하여 그동안 쌓인 수많은 연구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온 방법의 일부만을 제시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표3> 어감교육을 위한 방법의 일부

☞ 외국어(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외국어 사용의 분위기 조성하기
☞ 언어지식과 문화지식 학습하기
☞ 연상법으로 상상력을 키우기
☞ 송독을 강조하기
☞ 과외 독서량 늘리기
☞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훈련을 통한 어감 형성하기
☞ 모방 쓰기 연습하기
☞ 외워 쓰기 연습하기
☞ 어휘, 문법, 문장 비교하기
☞ 느끼고 터득하기

### 3.2. 기존 교재의 비교 분석

18) 李旭明(2006: 19-21), 溫桂松(2012: 27-28), 鄧明菁(2004:17-25), 劉芳(2013:17-22), 黃莉萍(2010:21-39) 등 논의를 참조했다.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로 출판된 교재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중국 내 출판된 기존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

	교재명	저자	출판사	년도	비고
1	高級韓國語(上/下)	崔義秀 외 2명	遼寧民族出版社	2002	자체 개발
2	高級韓國語(上/下)	全龍華	延邊大學出版社	2010	자체 개발
3	高級韓國語(上)	延邊大學朝鮮-韓國語學院 (馬金善 외 2명)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10	자체 개발
	高級韓國語(下)	延邊大學朝鮮-韓國語學院 (沈賢淑 외 2명)			
4	新編高級韓國語(上/下)	金長善 외 5명	北京大學出版社	2014	공동 개발
5	進階韓國語(高級)	何彤梅 외 4명	世界圖書出版社	2006	공동 개발
6	大學韓國語(5/6)	牛林杰 외 4명	北京大學出版社	2009	공동 개발
7	新標準韓國語(高級1/2)	鮮文大學韓國語教育院	大連出版社	2008	번역 출판
8	新標準韓國語(高級1/2)	金重燮 외 3명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9	번역 출판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출판된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는 총 8종인데, 중국 자체 개발 교재가 3종, 중한 공동 개발 교재가 3종, 번역 출판된 한국 교재가 2종이다. 중국에서 개발한 교재는 다시 조선족 주필의 경우(1, 2, 3, 4번 교재), 한족 주필의 경우(5, 6번 교재)로 양분되어 있다. 논의의 전면성을 고려해 볼 때 이 8종 교재를 모두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면 관계상 3, 6, 8번 교재(延邊大 교재, 牛林杰 교재, 金重燮 교재)<sup>19)</sup>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 편의상 아래의 논의에서는 각 교재의 이름을 대표 저자의 이름이나 기관 이름으로 대신한다.

우선, 이 3종 교재는 각각 중국 자체 개발 교재(조선족 주필 교재), 중한 공동 개발 교재(한족 주필 교재), 번역 출판 교재(한국인 주필 교재)의 대표 교재이다. 개발진의 구성이 다르면 교재의 장단점도 다르므로 비교 분석하여 보다 많은 시사점을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번역 출판된 한국 교재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재 개발 방식이 다른 중한 교재를 비교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이다.

둘째, 개발진 구성이 같은 교재들 중에서 이들 교재를 택한 것은 이들 교재가 다른 교재와 비교해 볼 때 교재 개발진, 구성 체제, 제재 선정, 언어적 요소 구성, 학습 활동 설계에 있어서 대체로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나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자체 개발 교재(조선족 주필 교재)의 경우, 3번 교재(延邊大 교재)는 1, 2번 교재보다 교재 구성, 언어 요소의 구성 및 설명, 학습 활동 설계 등 면에서 약간의 진보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2번 교재의 경우 개발진이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교재 개발이 쉽지 않을 만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보다 완벽한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3번 교재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교재로서 2번 교재보다 상대적으로 전형성을 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출판된 4번 교재는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그림 삽입, 다양한 언어 요소 제시, 대화 추가 등의 진보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1, 2, 3 번 교재의 구성 체제, 학습 활동 설계 방식 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1, 2, 3번 교재와 달리 본문으로 상용된 글을 한국인이 쓴 원작이 아닌 집필진에 의해 쓰여진 글이라는 아쉬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교재 분석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구성 체제, 학습 활동 및 제재 선정 면에서 기존 교재를 초월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중한 공동 개발 교재(한족 주필 교재)의 경우, 6번 교재(牛林杰 교재)는 총 6권 시리즈 중의 일부로서 1권짜리인 5번 교재보다 교수-학습의 위계화 및 체계화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으며, 구성 체제 등의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면을 보이고 있다. 번역 출판된 교재의 경우, 7번 교재는

언어 요소 및 학습 활동 설계, 단원 주제 선정 등의 면에서 배울 만한 점도 없지 않지만 체제 상 중국 내에서 개발한 교재와 거의 비슷하며 내용도 상대적으로 쉬워서 중국 내 고급 단계 학습자에게는 맞지 않는 면이 보인다. 8번 교재(金重燮 교재)는 중국 내 개발 교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3번 延邊大 교재(2010), 6번 牛林杰 교재(2009), 8번 金重燮 교재(2009)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 3.2.1. 교재 구성 분석

#### (1) 전체 구성

<표5> 교재의 전체 구성

교재		전체 구성
延邊大 (2010)	상	머리말-차례-단원(12과)- 읽기와 사고
	하	머리말-차례-단원(10과)- 읽기와 사고 - 단어 색인-어휘 의미와 용법 색인
牛林杰 (2009)		머리말-차례-단원(12과)
金重燮 (2009)		머리말-일러두기-차례-교재구성-등장인물-단원(8과)-찾아보기(표현/어휘/문법)

각 교재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머리말-차례-본 단원-부록이나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金重燮 교재(2009)의 경우, 머리말 외에는 교재의 구성 의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일러두기와 교재 구성을 한 눈에 알아보게 하는 교재 구성표, 교재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을 둔 것이 한 특징이다. 이는 교재의 사용자에게 교재의 특징 및 사용법을 알게 하는 편의를 주는 것이라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 교재의 머리말이나 일러두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세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재 개발 의도, 교재 사용자(고급 단계 학습자), 교재 구

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각 교재의 교재 개발 의도<sup>20)</sup>를 살펴보면 牛林杰 교재(2009)와 金重燮 교재(2009)는 '통합적 한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개발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데,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표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延邊大 교재(2010)는 한국어 읽기 능력과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내에서 개발된 교재는 통합 교재에 대한 개념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개발 목적이 애매하면, 교재 구성, 교재 내용의 선정, 학습 활동의 설계 등의 여러 측면에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각 교재는 대략 8-12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내 대학교의 실정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 중국 내의 대학교는 대체로 학기당 16-18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주당 1과씩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 주에 복습이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학교마다의 수준 차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15과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중국 내 대학의 학습 실정에 부합할 것 같다.

또한 각 교재의 부록을 살펴보면, 延邊大 교재(2010-하), 金重燮 교재(2009)의 부록에 어휘 색인, 문법 색인, 관용 표현 색인 등이 들어 있지만 延邊大 교재(2010-상)와 牛林杰 교재(2009)에는 어휘 색인, 문법 색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보완되어야 할 부분

20) 각 교재의 개발 의도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延邊大 (2010)	학습자의 어휘 수량을 늘려 이해 능력과 읽기 능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牛林杰 (2009)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고 듣기·말하기·쓰기·읽기 기능 훈련을 균형 있게 하여 튼튼한 한국어 기초를 닦음으로써 통합적 한국어 사용 능력을 신속히 향상시키도록 한다. 아울러 한국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본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金重燮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듣기·말하기·쓰기·읽기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킨다.</li> <li>* 글쓰기와 말하기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표현력을 신장시킨다.</li> <li>* 학습자가 한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시킨다.</li> <li>*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li> </ul>

이라고 생각한다.

延邊大 교재(2010)에는 '읽기와 사고'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읽을 만한 글들을 모아 둔 것이다. 학습자의 읽기 능력의 신장을 위한 바람직한 의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부분의 내용을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을 지향하는 통합 교재의 어느 부분에 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 (2) 단원 조직

延邊大 교재(2010), 牛林杰 교재(2009)는 단원 제목(주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다만 제재의 제목으로 단원의 제목을 대신하고 있다. 즉 중국 내에서 개발한 교재는 한결같이 전통적인 조직 방식, 텍스트 중심의 조직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21)</sup> 제재의 내용(주제)과 장르에 근거를 두고 단원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金重燮 교재(2009)는 주제(한국 문화) 중심의 조직 방식을 취하되 텍스트 장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보인다.

이처럼 주제 중심의 조직 방식은 한중 양국에서 모두 사용하는 조직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속성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즉, 높은 단계에 올라갈수록 각 언어 요소의 등급화 체계가 모호해진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고급 단계의 교수-학습 내용은 언어 요소의 순차성에 따라 설정하는 것보다 본문 내용과 여러 형식에 대한 필요를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교수-학습 내용을 조절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 중심의 접근 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이다.<sup>22)</sup>

## (3) 단원 구성

---

21) 단원 조직 원리는 과제 중심 모형, 능력 중심 모형, 텍스트 조직 모형으로, 맥락 중심 모형을 들 수 있다. 이삼형 외(2000:325-327)를 참조하기 바란다.

22)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지, 그리고 이들 주제를 다루는 단원에서 장르에 근거하여 제재를 수록할지(즉 교재 집필진에 의해 제작한 글을 수록할지, 정진성이 높은 글을 수록할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제재 분석 부분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표6> 교재의 단원 구성

교재	단원 구성
延邊大 (2010)	제제-새 단어-문법 설명-어휘 의미와 용법-연습
牛林杰 (2009)	작가 작품 소개-생각할 문제-제제-단어-보충지식(문법과 관용표현)-연습 문제
金重燮 (2009)	주제와 문법 항목 제시-도입-듣기1-듣기2-문법- 읽기1-읽기2-쓰기-말하 기

각 교재의 단원을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 개발한 교재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한결같이 '제제-어휘와 문법 제시나 설명-연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텍스트 중심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그러나 이와 달리 金重燮 교재(2009)는 언어 기능에 따른 과정 중심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텍스트 중심의 조직 방식은 능력 신장을 소홀히 하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과제 중심의 조직 방식은 텍스트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 어휘나 문법에 대한 확실한 파악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보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본다.

그리고 이 3종 교재는 모두 단원의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金重燮 교재(2009)는 단원 앞에 단원 주제 및 학습할 문법 항목을 제시해 놓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단원 학습 목표를 대신할 수 없다.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단원 학습 목표란 적어도 이 단원을 학습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언어 사용 능력이 어떤 것이고(기능), 알아두어야 할 언어 지식이나 문화 지식이 무엇이며(지식), 또 개인성장 면에서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내용(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텍스트 중심의 조직 방식을 취한 중국 내 2종 교재를 비교해 보면, 牛林杰 교재(2009)는 본문 제제에 대한 소개와 제제 읽기 전의 도입 활동이 제안되어 있지만 延邊大 교재(2009)는 그렇지 않다. 또 이 2종 교재는 모두 제제를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23) 단원 구성 원리도 단원 조직 원리처럼 과제 중심 모형으로, 능력 중심 모형으로, 텍스트 중심 모형으로 구분된다. 이삼형(2000:325-327)을 참조하기 바란다.

학습 효과를 진단하는 평가 방법에 대한 제시, 학습 효과의 정착을 위한 보충·심화 단계의 설정, 해당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하는 단계 설정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계획 진단→지도→평가→정착> 등의 교육 단계, <도입→전개→정리> 등의 수업 절차 혹은 과정을 고려하는 과정 중심과 활동 중심 모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전체적 접근→부분적 접근→통합적 접근> 등의 제재 독해 절차와 <질문→반응→일반화→적용> 등의 교수-학습 방법 모형이 이들 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면, 金重燮 교재(2009)는 각 언어 기능에 관한 과제에서 모두 '도입-연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내 교재보다 진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위에서 말한 수업 절차에 비춰 보면 역시 '평가-정착' 혹은 '정리'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아쉬운 점도 있다.

이처럼 3종 교재는 모두 교수-학습 과정을 완벽히 보여주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학습자에 대한 학습 지도, 나아가 학습자가 자율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기에는 비효율적이라 본다.

### 3.2.2. 제재 분석

이 절에서는 각 교재별로 단원의 본문 제목과 저자, 그리고 글의 종류 및 주제가 속해 있는 분야를 정리하여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延邊大 교재(2010)

<표7> 延邊大 교재(2010)의 제재 수록 양상

교재	단원	제목	저자	장르	주제
상권	1	청춘예찬	민태원	현대수필	인성 교육(자연예찬)
	2	신호등	홍미숙	현대수필	인성 교육(삶의 지혜)
	3	인생의 목표	없음	현대수필	인성 교육(자아탐색)
	4	함께 사는 지혜	없음	현대수필	인성 교육(삶의 지혜)
	5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없음	현대수필	인성 교육(가정 사랑)



	6	평범한 사람들의 철학	박연구	현대수필	인성 교육(자아탐색)	
	7	도편수의 긍지	이범선	현대수필	인성 교육 <sup>24)</sup> (옛 사람들의 성실성, 책임감, 긍지)	
	8	건강한 대륙-아프리카	없음	설명문	인문 사회(아프리카 소개)	
	9	21세기 사회와 독서	없음	논설문	인문 사회(독서 문제)	
	10	우정의 길	없음	현대수필	인성 교육(우정)	
	11	생일선물	박상률	현대소설	인성 교육(성장기 소년의 사랑과 외로움)	
	12	옥상의 민들레꽃	박완서	현대소설	인성 교육(자아탐색)	
	하 권	1	언어와 생활	심재기	현대수필	인문 사회(삶에서 언어의 중요성)
		2	설	전숙희	현대수필	한국 전통 민속 문화
		3	아리랑	이규태	현대수필	한국 전통 문화
		4	무정	조계철	현대수필	인성 교육(삶의 무정함)
		5	양반전	박지원	고전소설	한국 고전문학(선비 비판)
6		이 땅의 한 끝	김명렬	현대수필	한국 지리 문화	
7		잊지 못할 운동주	정병욱	현대수필	한국 문화(현대 인물)	
8		우동 한 그릇	구로료헤이	일본소설	일본문학	
9		임격정	홍명희	현대소설	한국 문화(한국 고대 인물)	
10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현대소설	인성 교육(가족 사랑)	

우선, 주제로 볼 때 한국 지리 문화(1), 한국 전통 문화(2), 한국 고전문학(1), 한국 인물(2), 인성교육(12), 인문 사회(3), 일본문학(1) 등이 선정되어 있다.<sup>25)</sup> 한국 문화(현대, 전통), 사회 문제, 다른 나라 문화까지 여러 분야에 관한 다양하고도 꽤 깊이 있는 주제를 내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24) <도편수의 긍지>의 경우, 도편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옛 사람들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현대인의 무책임과 불성실에 대조시킴으로써 현대인의 삶의 자세를 비판하고 반성하게 하는 작품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비판하는 현상은 단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므로 이 작품의 주제를 한국 문화로 보기보다 인성 교육(자아 탐색)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하 <옥상의 민들레꽃><금시조> 등의 소설 작품도 같은 경우이다.

25) 괄호 안의 숫자는 관련 주제에 관한 글의 수량이다. 이하 같음.

있다. 이는 학습자의 문화능력, 사고력, 창의력 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인성교육에 관한 글(12편)이 제일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 문화에 관한 글(6편)이 그 다음으로 많다. 인성교육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 사용 능력 및 한국 문화 능력의 신장이 한국어학과의 일차적 목표임을 상기할 때 한국 문화에 관한 주제와의 비율을 비슷하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성교육 관련 글들은 모두 한국인이 쓴 글들이라 제대로 된 표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유명한 작가의 글이라는 상식 등)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인성교육에 관한 글 가운데, 박상률 작품의 경우, '성장기 소년의 사랑과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소년이 아닌 대학생 학습자들에게 적절치 않은 주제라 본다.<sup>26)</sup>

한국 문화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인의 가치관, 인생관, 종교 등의 정신문화(성취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급 단계에서는 이런 성취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는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인문 사회'의 내용은 '아프리카 소개', '삶에서 언어의 중요성' 등 한국과 관련된 것이 아닌 보편적인 내용이다. 물론 세계적인 문화나 문제, 보편적 인문 지식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고, 관련 표현도 학습해야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한국 사회 문화나 문제에 관한 내용에 관련지어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보편적인 인문 지식이나 사회 문화, 문제를 주제로 하기보다 한국 인문 지식이나 사회 문화, 문제를 주제로 하되, 학습 활동이나 과외 읽기 자료로 세계적인 사회 문제나 문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한국 문화 이해에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교과서 안에 모두 다루기도 힘든 상황에 가급적이면 보편적 문화나 문제보다 한국 인문 지식이

---

26) 인성 교육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는 정기철(2001:215-230)에서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자아탐색과 자아실현,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친구와의 우정 쌓기,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성에 대해 이해하기,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끌어안기, 국가·민족·우리문화를 지키는 마음, 삶을 위한 지혜 쌓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들 주제의 하위 주제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나 사회 문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언어 사용 능력 및 한국 문화 능력의 신장이 한국어학과의 일차적 목표라는 점을 상기할 때 번역된 외국 문학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많은 한국 문화를 교재에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문학(문화)까지 끼어 넣을 자리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아무리 잘 번역된 작품이라고 해도 직접 한국어로 쓴 작품만큼 한국어의 진수(眞髓)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타 주제를 다룰 때도 한국인이 한국어로 직접 쓴 한국어 글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교재에 수록된 현대소설들은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인성교육이나 문화교육으로 접근하려는 의도, 즉 문학을 통한 인성교육, 문화교육이라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도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 재미있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지만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정수도 보여 줘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 문학교육을 위한 작품 수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 문종으로 볼 때, 전체 22개 단원 가운데 한국 현대수필이 14편(64%), 한국 현대소설이 4편(18%), 고전소설 1편, 설명문이 1편, 논설문이 1편, 외국 소설이 1편 실려 있다. 수필 수록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짧막하고도 재미있는 수필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기가 쉽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문종별로 보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글을 반영하는 정도가 문학 작품의 수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루할 수 있는 설명문보다 전기, 기행문, 평론, 우화, 동화 등의 기타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글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제재의 정전성 문제를 볼 때, 주로 문학사에서 인정받은 근대문학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비문학 작품들도 대부분이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는 글들이어서 정전성이 높은 글들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우, 2012:161). 올바르게 세련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이런 정전성이 높은 글을 선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신경숙, 박상률 등 90년대 이후 작가의 작품들도 수록해서 제제 선정 범위의 확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박완서, 신경숙, 홍미숙, 전숙희 등 다양한 연대대의 여성 작가들의 글도 수록되어 있어서 양성 평등의 균형을 보이고 있다(김정우, 2012: 166).

(2) 牛林杰 교재(2009)

<표8> 牛林杰 교재(2009)의 제제 수록 양상

교재	단원	제목	저자	장르	주제
상권	1	소주 정원	없음	현대수필	인문 사회(중국 건축 문화)
	2	사이드의 삶과 사상	없음	전기문	인문 사회 (팔레스타인 인물)
	3	웰빙 문화	없음(조영경)	실용서	인문 사회
	4	남대문 시장	없음	설명문	한국 문화
	5	숲 속의 곰곰님	없음	우화	인성 교육(자아탐색)
	6	사장	서광원	현대수필	한국 문화(한국 사회 문제)
	7	잊지 못할 운동주	정병욱	현대수필	한국 문화(현대 인물)
	8	동백꽃	김유정	현대소설	한국 문학
	9	소나기	황순원	현대소설	한국 문학
	10	수난이대	하근찬	현대소설	한국 문학(시대상)
	11	눈길(1)	이청준	현대소설	한국 문화(인물상, 어머니 이미지)
	12	눈길(2)	이청준	현대소설	한국 문화(인물상, 어머니 이미지)
하권	1	한국의 전통 혼례	없음	설명문	한국 문화(전통 문화)
	2	학문의 목적	박종홍	논설문	인문 사회
	3	인터넷	없음	설명문	인문 사회
	4	올림픽을 향하여	중국 기자	중국수필	주제 범주 불명(?)
	5	신록예찬	이양하	현대수필	인성 교육(자연예찬)
	6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데	현대소설	프랑스 문학
	7	우동 한 그릇	구리 료헤이	현대소설	일본 문학
	8	마지막 임금님	박완서	현대소설	인성 교육(자아탐색)
	9	콩이지	노신	현대소설	중국 문학
	10	포스트모던의 보자기 문화	이어령	현대수필	한국 문화(한국의 정신문화)
	11	금시조(1)	이문열	현대소설	인성 교육(자아탐색)

12	금시조(2)	이문열	현대소설	인성 교육(자아탐색)
----	--------	-----	------	-------------

우선, 주제로 볼 때, 한국 문화(7), 인성교육(5), 한국 현대문학(3), 인문 사회(5), 중국 문학(1), 프랑스 문학(1), 일본 문학(1), 그리고 범주 불명의 글(1)이 수록되어 있다. 延邊大 교재(2010)와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 관한 다양하고도 꽤 깊이 있는 주제를 내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문화능력, 사고력, 창의력 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한국 문화에 관한 글(7)과 인성교육에 관한 글(5)을 제일 많이 수록하고 있다. 역시 한국 문화 능력 신장과 인성교육이라는 교육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엿보인다.

한국 정신문화, 한국 인물상에 관한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延邊大 교재(2010)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도이다. 한국 문화의 선정 범주가 상대적으로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 특히 정신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 본다. 즉 선정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인문 사회에 관한 글로 중국 건축 문화, 팔레스타인 사상가의 전기, 한국 문화가 아닌 보편적인 문화로서의 웰빙 문화, 학문의 목적, 인터넷 문화 등이 수록된 것은 적절치 않고, 또한 중국 문학, 프랑스 문학, 일본 문학이 수록된 것도 문제이다. 앞서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이는 한국 문화나 인성교육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들이라 한국 문화 능력 신장과 인성교육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다. 중국 기자가 쓴 <올림픽을 향하여>라는 글도 그저 중국 사람으로서 올림픽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다는 것에 대한 설렘을 전달하는 것으로 한국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글이라 역시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한 인성교육에 관한 글로 우화 <숲 속의 곰금님>은 한국 우화인지, 다른 나라 우화인지 출처가 불분명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재에는 고전문학을 수록하지 않은 단점도 있다.

다음 문종별로는 전체 24개 단원 가운데 한국 현대수필이 6편(25%), 한국 현대소설이 8편(33%), 외국 소설 3편, 설명문이 3편, 논설문이 1편, 전기문이 1편, 실용서가 1편, 우화가 1편 실려 있다. 延邊大 교재(2010)와 마

찬가지로 수필과 소설이 제일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현대소설의 수록 비율이 제일 높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리고 실용서, 우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延邊大 교재(2010)에 보이지 않는 문종이다. 그러나 고전소설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제재의 선정에 있어서 역시 정전성이 높은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이문열, 이청준, 박완서, 황순원, 김유정, 하근찬, 이양하 등 한국 문학사상 유명한 작가들의 글을 많이 수록하여 延邊大 교재(2010)에 비해 한국 근현대 작가(한국 문학의 일부)를 알리는 데 신경을 많이 쓴 노력이 보인다.

### (3) 金重燮 교재(2009)

<표9> 金重燮 교재(2009)의 제재 수록 양상

교재	단원 원	단원 제목 (큰 주제)	소주제	읽기 제재
상권	1	대중문화	유행/영화/대중가요/ 고전소설	1. 대중가요의 생명력 2. 여러 장르의 춘향전
	2	민속과 삶	명절 풍속/상상의 동물/ 결혼의 절차 /집들이 선물	1. 집들이 선물 2. 추석의 풍속
	3	언어 학습	한국어 학습/대화의 시작/언어와 문화/외국어 학습 방법	1. 언어와 문화 2.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
	4	개인과 가정	집안일/가족의 여가 생활/ 비빔밥/가전제품/남녀평등	1. 비빔밥의 유래와 의미 2. 제품 광고와 사용 설명서
	5	운동과 오락	개인의 취미 생활/전통 스포츠와 오락/현대 스포츠	1. 전통 놀이 '장기와 바둑' 2. 문화 행사에 관한 짧은 기사
	6	기후와 여행	기후와 기상/일기예보/ 한국의 여행지/관광 상품	1. 얼음골에 다녀와서 2. 여행지 안내문
	7	과학과 기술	발명/정보 통신/ 전통 속설/ 뇌/미래 과학	1. 옛말의 과학성 2. 인간의 뇌
	8	이야기와 글	재미있는 이야기/설화/수필	1. 선녀와 나무꾼 2. 소중한 '하나'
하권	1	교육과 미래	평생 교육/ 학교 교육/ 가정 교육 / 한국어 교사	1. 열성 선생님의 하루 2. 좋은 학교 소개
	2	문화와	한국 문학/미술/판소리/	1. '밥'에 대한 짧은 글 모음

	예술	한국 문화의 특질	2. 신인 문학상·음악가 공모
3	역사와 유래	역사 유적지/잘못 알려진 역사/단어의 유래/진국 신화/개인의 역사	1. 단어의 유래에 관한 글 2. 신화와 역사
4	매체와 사회	선거와 투표/사회 뉴스/봉사 활동/TV와 신문	1. 사랑의 호스피스 2. 환경 관련 기사 3. 미담 기사
5	철학과 윤리	전통 윤리/생활 철학/한국의 철학자	1. 아름다운 언어와 정신 2. '우리' 의식
6	경제와 생활	구매와 경영/취업/고령화 사회/광고	1. 할인점의 상품 진열 2. 고령화 사회
7	건강과 식사	식이 요법/장수촌/다이어트/흡연과 금연	1. 사상 의학 2. 건강과 장수
8	발표	발표/신문 투고/논문	1. 수줍은 한국인 2. 설화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방안

앞의 2종 교재와 달리 유명한 작가의 글을 선정하는 것보다 해당 주제에 맞게 집필진이 쓴 글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설명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사, 논문도 수록되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집필진이 아닌 한국인이 쓴 원작'이라는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주제로 볼 때, 한국 문화에 관한 주제와 오늘날의 사회 문제(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사회 문제)에 관한 주제로 양분되어 있다. 한국 문화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교육 목표에 부합되는 배정이다. 그러나 주제의 난이도가 고급 단계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집들이 선물, 추석의 풍속, 비빔밥의 유래와 의미 등은 전부 일상생활에 관한 쉬운 것으로 초·중급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므로 고급 교재에 수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단원의 큰 주제로 쓰인 민속과 삶, 개인과 가정, 문화와 예술, 철학과 윤리경제와 생활 등은 인성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것으로 고급 교재에도 뽑힐 만한 주제이다. 다만 이들 큰 주제에 어울리는 제재로는 위에서 제시한 일상생활에 관한 쉬운 내용을 피하고 심도 있는 글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읽기 활동에서 다루는 글들이 대체로 설명문이라

는 문제점이 있어서 문종의 다양성을 특히 강조한다. 예컨대, 한국의 여성을 소개할 때, 설명문보다는 전기문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한국의 사상과 철학을 소개할 때, 작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작가의 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더 재미있고 학습 효과가 좋을 것이다.

### 3.3.3. 언어 요소 분석

고급 단계에 올라와서는 문법보다 배워야 할 어휘의 양이 대폭 증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문법이나 어휘도 초·중급 단계에서 다루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것보다 문어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낯설고 함축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 문법이나 어휘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이나 해석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3종 교재의 어휘와 문법의 제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교재 언어 요소의 내용과 기술 방법

교재	제시 위치	제목 및 내용	기술 방법	
延邊大	본문 뒤	새 단어	제시어(한자어)-품사-한국어 뜻풀이	
		문법 설명	문법 항목 제시-한국어 해설-예문(문장 4개)	
		어휘 의미와 용법	제시어-한국어 뜻풀이-예문(문장 2개)	
牛林杰	본문 뒤	단어	제시어-품사-한국어 뜻풀이	
		보충 지식	상용부사	제시어-한국어 뜻풀이-예문 (문장 1개)
			속담 및 관용구	항목 제시-한국어 뜻풀이
		관용표현	항목 제시-한국어 뜻풀이-예문(문장 2개)	
金重燮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활동 사이에 곁	단어	제시어-품사-중국어 대역	
		문법	학습 활동을 통해 문법 항목을 제시하기- 문법 해설(한국어 뜻풀이-예문(문장 2~3개))-관련 학습 활동	
		발음 지도	발음 제시- 한국어 해설	
		표현(특정 상황)	* 문장 2개 이상 제시하기	



	에서 사용하는 표현)	* 대화문을 통해 제시하기
--	----------------	----------------

우선 어휘나 문법 제시 위치에 대해서, 金重燮 교재(2009) 외에는 대체로 본문 뒤에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金重燮 교재(2009)는 각 언어 학습 활동 속에 관련 어휘를 따로따로 제시하는 산재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관련 학습 활동을 할 때 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金重燮 교재(2009)의 이런 방식에서 얻은 힌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단어를 반드시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본문 중에 제시해도 좋다는 것이다.

어휘 기술 방법에 대해서, 3종 교재가 모두 '제시어-품사-한국어 뜻풀이이거나 중국어 대역'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관건은 어휘의 뜻을 한국어로 뜻풀이하는 것이 마땅한가 중국어 대역으로 해 두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이다. 이는 품사에 따라 다를 것이라 본다. 명사일 경우, 중국어 대역이 있으면 중국어 대역으로 제시해 두는 게 효과적일 테지만 형용사, 동사, 부사 등일 경우 한국어 뜻풀이와 중국어 대역이 모두 필요하다. 한국어 어휘를 중국어로 번역할 경우, 똑같은 뜻으로 번역될 경우도 있지만 똑같이 번역되지 못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한국어 뜻풀이 없이 그저 중국어로 번역한다면 어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어휘의 오용을 초래하기 쉽다. 그리고 고급 단계의 어휘는 더더욱 함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 대역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또 한 가지, 延邊大 교재(2010)의 경우, 어휘 제시어 뒤에 대응 한자를 함께 표기해 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한자에 익숙한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어휘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본다. 단 한자로 표기되는 뜻과 단어의 실제 뜻과 다를 경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해설하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다.

延邊大 교재(2010)는 기타 교재와 달리 일부 어휘의 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는 부분이 설정되어 있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 본다. 다만 어휘 용법에 대한 해설만 있고 관련 연습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어휘는 그 뜻을 안다는 것만으로 실제 활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휘의 용법을 알고, 그 용법을 활용하는 연습까지 해야 그 어휘를 완전히 알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 교재처럼 어휘의 뜻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중요한 어휘의 용법을 설명하고 관련 연습까지 시키도록 해야 한다.

어휘 용법에 대해 설명할 때, 뜻풀이 외에 예문도 몇 개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延邊大 교재(2010)에는 모두 해당 예문을 들어주었지만 모두 대화문이 아닌 단 문장이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단 문장도 좋지만, 어휘 사용 맥락을 확실히 보여 주기 위해서는 대화문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문법 항목의 기술 문제를 살펴보면, 延邊大 교재(2010-상)은 문법 기술에 있어서 대체로 '문법 항목 제시-한국어 해설-예문 제시'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延邊大 교재(2010-하)와 牛林杰 교재(2009)는 문법 학습이 초·중급 단계에서 이미 끝나기 때문에 고급 교재에서 따로 해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법에 대한 기술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급 단계에서도 다루어야 할 문법 항목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문어체에서 상용하는 문법들, 이는 초·중급단계에서 배울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급 교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고, 이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문법 항목에 대한 뜻풀이는 延邊大 교재(2010-하)와 牛林杰 교재의 경우 모두 한국어 해설로만 되어 있다.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대응되는 중국어 대역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시되는 예문들은 모두 단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법의 사용 맥락(상황)을 보여 주기 위해, 문법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대화문 예문을 추가해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두 교재는 모두 문법 예문을 번역해 두었다.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金重燮 교재(2009)는 좀 남다른 방식으로 문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통해 문법의 뜻을 감으로 느끼게 하고 문법에 대한 뜻풀이와 예문을 보여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뜻풀이한 후 관련 연습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

다 흥미롭게 문법을 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해 볼 만한 방식이라 본다. 다만 문법의 뜻을 중국어로 대역해 두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교재에 포함되는 언어 요소 범위를 살펴보면 3종 교재 가운데 延邊大 교재(2010)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어휘와 문법만을 다루고 있지만 牛林杰 교재와 金重燮 교재(2009)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牛林杰 교재(2009)에는 문법이라는 코너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보충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상용부사, 속담 및 관용구, 관용표현 세 부분으로 나눠 관련 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金重燮 교재(2009)는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표현을 소개하고 있고 '발음' 코너를 설정하여 발음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牛林杰 교재(2009)와 金重燮 교재(2009)는 다루는 요소로 어휘와 문법(관용구, 관용표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의 속담, 상용부사, 특정 상황의 적절한 표현, 한국어 발음 지도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보다 풍부한 한국어를 배우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 본다.

이러한 언어 요소에 대한 해설도 역시 '항목 제시-한국어 뜻풀이-예문(단 문장 혹은 대화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어 뜻풀이 외에 대응되는 중국어 대역이 필요하고, 예문으로 단 문장뿐만 아니라 사용 맥락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화문까지 제시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휘의 수량과 수준을 살펴보면, 중국 내 2종 교재는 어휘의 수량이 훨씬 많고 수준도 학습자들이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교재 개발진이 자체 집필을 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에서 인정받는 좋은 글을 골라 분문의 제재로 신는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라 분석된다.<sup>27)</sup> 이와 달리, 金重燮 교재(2009)는 교재 개발진이 자체 집필하는 방식의 교재라 양적으로도 수준으로도 비교적 알맞게 선정하였다.

---

27) 김정우(2012: 174-176)에서 중국 내 4종 교재에 수록된 어휘의 수량과 수준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한재영 외(2010: 20)에 의하면 초급, 중급을 거쳐 고급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대략 6,000 어휘에서 12,000~14,000 어휘 정도를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볼 때 중국 내 4종 교재에 수록된 어휘의 수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결과에 비춰 보면 어휘의 수준도 훨씬 높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어휘의 수량과 수준을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게 조절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급 단계 용 어휘 목록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우선 국립국어연구원의 어휘 등급을 활용해 한정적이거나 고급 수준의 어휘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sup>28)</sup>

### 3.3.4. 학습 활동 분석

각 교재의 학습 활동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다음 표를 통해 교재별로 읽기 활동의 설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11> 교재 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교재	학습 활동 유형 및 내용
延邊大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법 연습(문장 짓기, 알맞은 문법 형태를 써 넣기, 비슷한 것을 고르기 등)</li> <li>2. 어휘 연습(문장 짓기,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 고르기, 비슷한 말 고르기 등)</li> <li>3. 쓰기 연습(주어진 문장을 이어서 완성하기, 문장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기, 틀린 것을 찾아 고치기, 제시된 표현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등)</li> <li>4. 질문 답하기(본문 내용 확인 질문)</li> <li>4. 읽기 연습(읽고 질문 답하기)</li> <li>5. 글짓기</li> </ol>
牛林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휘 연습(유의어 구별하기, 비슷한 말 고르기 등)</li> <li>2. 문법 연습(알맞은 것을 고르기 등)</li> <li>3. 관용구나 관용표현 연습(틀린 것을 고르기, 비슷한 말 고르기 등)</li> <li>4. 쓰기 연습(이어진 문장을 고르기, 문장들을 순서대로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기,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친 것을 고르기, 주어진 표현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등)</li> <li>5. 읽기 연습(읽고 질문에 답하기)</li> </ol>

28) 국립국어연구원의 어휘 등급에서 국어교육용과 한국어교육용으로 양분하여 약 30,000개의 어휘를 1-4급(국어교육)이나 초중고급(1-6급, 한국어교육)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고급 단계 어휘는 약 19,377개이다. 이들 어휘는 교재 개발에 앞서 어휘를 선정할 때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김정우, 2012: 176)

6. 번역 연습(글에 관한 한중 번역, 중한 번역)		
金 重 變	1. 도입 활동(말하기·쓰기)	단원 주제에 관련한 흥미로운 질문, 개인 경험 등에 대해 말하기, 차이점 구별하기, 그림 보고 연상하기, 개인 견해 말하기 등
	2. 듣기 활동(듣기·말하기·쓰기)	듣기 전 활동: 듣기 자료 주제에 관련한 질문에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답하기 등 듣기 활동: 듣기 자료 듣고 질문 답하기 들은 후 활동: 주제 관련한 말하기 활동
	3. 읽기 활동(읽기·말하기)	읽기 전 활동: 읽기 자료 주제에 관련한 질문에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답하기 등 읽기 활동: 자료 읽고 질문 답하기 읽은 후 활동: 주제 관련 말하기 활동
	4. 쓰기 활동(읽기·쓰기)	(1)어휘·문법 쓰기 활동 - 문법 항목을 가지고 빈칸 채우기 등 - 주어진 표현 가지고 문장 만들기 등 (2)글쓰기 활동 - 쓰기 전 활동: 보기와 같이 묘사하는 문단을 써 보기 등 - 쓰기 활동: 글쓰기
	5.말하기 활동(읽기·말하기·쓰기)	말하기 전 활동: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기, 해당 내용 정리하기 말하기 활동: 혼자하기, 짝 활동, 모둠 활동 등
	6.문법 학습 활동(읽기·쓰기·말하기)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꿔 보기, 문장 짓기, 주어진 상황에 맞게 말해 보기 등

각 교재의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중국 내 2종 교재의 학습 활동 유형이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다. 2종 교재는 모두 어휘 연습, 문법 연습, 번역 연습, 쓰기 연습, 읽기 연습, 글쓰기, 본문 내용 확인 연습 등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어휘 및 문법 학습에 초점을 맞춰 둔 결과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습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어 능력 시험의 출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나중에 응시하게 될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임을 일부 교재에서 그 의도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sup>29)</sup>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풀이 방식의 학습 활동은 어휘나 문법의 용법을 제대로 파악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상황 속에서 해당 어

29) 延邊大 교재(2010)의 머리말에서 이런 의도를 밝혔다.

휘나 문법, 그리고 적절한 표현을 제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는 학습자의 사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발하여 학습자의 사고력, 상상력을 신장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학습 활동 설계는 어감 형성에 지장을 줄 것이며,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 신장, 개인 창의력의 신장에도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 통합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듣기나 말하기, 쓰기 등의 활동을 특히 강조하여 언어 기능간의 통합도 이루어짐으로써 활용 연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학습 활동 설계는 학습자의 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기도 한다. 물론 문법 지식과 어휘 용법을 능히 익혀 두는 것도 어감 형성의 기초가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들 지식을 유창하게 구두로 표현하도록, 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어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낭송하기, 모방해서 쓰기, 과외 시간에 읽을 자료 제시하기, 다양한 말하기 활동 등의 설계를 통해 어감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한·한중 번역 연습을 살펴보면, 문장 번역 연습이 아닌 단문 번역 연습을 시키고 있다. 물론 글 번역 연습도 중요하지만 어휘나 문법 등의 언어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문에서 배운 어휘나 문법에 관한 문장 번역 연습도 시킬 필요가 있다.

金重燮 교재(2009)의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교재는 언어 사용 기능 통합 교육이라는 이념을 철저히 반영하여 교재 구성 자체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각 언어 기능 간의 통합도 강조되어 있고, 말하기 활동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능 활동은 모두 '도입-전개-정리'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듣기 활동은 듣기 전 활동, 듣기 활동, 들은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읽기 활동은 읽기 전 활동, 읽기 활동, 읽은 후 활동으로 되어 있다. 쓰기 활동과 말하기 활동도 각각 쓰기 전 활동과 말하기 전 활동이 설계되어 준비 연습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학습 과정에 따른 것이므로 보다 좋은 학습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말하기 활동 중에 혼자하기 활동, 짝 활동, 모둠 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습 흥미 유발, 학습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본다. 또 문법 학습 활동에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말해 보기'라는 활동이 특징적이다. 이는 문법 연습에 말하기 기능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문법을 제대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연습이라 참조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번역된 교재라 번역하기 학습 활동이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고 어휘 연습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학습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어진 듣기 자료나 읽기 자료의 내용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료 내용과 주제에 관련지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사고, 확장적[擴散性]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고안해 두었다. 즉 학습자의 사고력, 상상력을 키우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감 형성,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 한국 문화 능력의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sup>30)</sup>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을 강조하는 金重燮 교재(2009)는 학습자의 한국어 어감을 형성케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다. 즉 학습자의 독서량을 늘리도록 관련 글을 많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낭송하기라는 중요한 방법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어감 교육에 관한 보다 많은 방법을 교재의 학습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역시 필요하다.

#### 4.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통합교육이라는 이념과 교재 편찬의 이론에 입각하여 중국 내에서 출판된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 3종을 비교 분석하여 각 교재의 장단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개발할 통합 교재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sup>31)</sup> 그리고 이들 제언을 바탕으

30) 물론 각 언어 기능별 학습 활동 내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지면 관계상 다음 과제로 남긴다.

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연구해 내고, 또 이에 근거하여 실제 개발 작업을 진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 4.1. 교재의 구성 체제

### ① 전체 구성

교재의 전체 구성은 크게 '머리말-교재 구성표-차례-본 단원-부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머리말 부분에는 교재 편찬의 목적, 편찬 원칙이나 이념, 사용 대상, 교재 구성의 특징이나 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라서 편찬 원칙이나 이념으로 반드시 언어 기능 통합 교육 이념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 인성교육(인성함양)과 창의적 사고력을 본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의 목적도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교재 구성표와 교재 구성에 대한 소개를 넣어 교재 각 부분이 배정된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재 구성표에서는 각 단원의 제목과 주제, 학습 목표, 배울 어휘 종류와 문법, 제재 제목, 학습 활동 유형 등을 밝혀야 한다. 이는 교재의 전체 실러버스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목표 있고 의미 있는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원 수는 중국 대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학기마다 16-18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교재도 상·하권으로 나눠 각각 16-18 단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을 두어 각 단원에서 나온 어휘나 문법 항목의 색인, 학습 활동의 참고 답안을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의 편의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 대한 중국어 번역이 삽입될 필요가 있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할 때 도움이

---

31) 논의의 구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어 통합 교재의 구체적인 개발 예를 의도하였으나 지면 관계로 아쉽게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제재의 분량이나 난이도에 따라, 특히 소설 같이 번역하기 쉽지 않은 내용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다.

## ② 단원 조직 및 구성

높은 단계에 올라갈수록 각 언어 요소의 등급화 체계가 모호해진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주제 중심의 조직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까지의 학습 규율에 따라 주제의 난이도를 고려한 단원 조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원 구성은, 텍스트 중심과 과제 중심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텍스트 중심과 과제 중심을 상호보완적으로 혼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단원 구성에 있어서 '도입-전개-정리'라는 수업 절차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단원 구성을 구안해 볼 수 있다.

<표12>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단원 구성

수업 절차		단원 구성	내용 설명	
도입	계획	단원의 길잡이	단원 주제의 선정 이유를 설명하고, 단원 주제에 따른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배워야 할 문법 항목이나 표현, 이해와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의 다섯 가지 기능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	
	진단	듣고 말하기	단원 주제에 관련된 듣기 자료나 동영상을 보여주고 학습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등 관련된 말하기 활동을 진행하기. 이로써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흥미 유발을 할 수도 있음. 이 부분의 학습 활동은 듣기 전, 듣기, 들은 후 활동으로 나눠 설계할 수 있음.	
		생각하고 말하기	주제 관련 그림이나 짝막한 읽기 자료(글귀 하나 등), 관련된 상황 등을 주어 이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말하게 하기. 역시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동임.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력, 연상력이 신장될 것임.	
전지	제재 읽기	읽기	제재 소개, 제재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질	

개 도		전	문을 하여 생각하고 말하게 하기.
		읽기	제재를 읽어 나가면서 내용 이해를 돕는 질문을 제시하여 답하게 하기. 그리고 읽어 나가면서 어휘 문법 등의 언어 요소를 배우게 하기. 어휘 문법 요소의 뜻만 알려주는 것 아니라 관련된 연습도 시키기.
		읽은 후	내용 학습: 제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 답하기. / 목표 학습: 제재 내용이나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된 말하기·쓰기 활동.
정 리	내 면 화	말하기	단원 주제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말하기 활동 진행. 여기서는 말하기 전 준비활동과 말하기 활동으로 나눠 학습 활동을 제시할 수 있음.
		쓰기	단원 주제에 관련하여 학습자 나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글쓰기 전의 준비활동과 글쓰기 활동으로 나눠 제시할 수 있음.
		번역하기	배운 어휘나 문법,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 연습을 시키는 활동. 문장 번역과 글 번역, 중한번역과 한중번역으로 나눠서 제시하기.
		읽기	단원 주제 관련된 읽기 자료, 본문 제재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제재를 제시하고 관련 학습 활동을 제시하기.
		문화코너	단원 주제와 관련된 한국 문화 지식, 중한 문화 비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
	평 가	점검하기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고 어느 정도 배웠는지 질문이나 문제 풀이 형식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하기.

위 단원 구성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자면,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단원 구성은 크게 '도입(계획+진단)-전개(지도)-정리(내면화와 평가)'라는 수업 절차에 준해서 고안되었다. 그리고 과제 중심의 구성 방식을 반영하여 각 수업 절차에서 각 언어 기능 활동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텍스트 중심이라는 구성 방식을 반영하여 학습 중점인 지도 단계에 제재 읽기를 두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설하자면, 도입(진단) 단계에서 듣기·말하기 활동(듣고 말하기/생각하고 말하기), 전개(지도) 단계에서 제재 읽기 활동, 정리(내면화) 단계에서 말하기, 쓰기, 번역하기, 읽기 활동을 배정하도록 하여 과제 중심과 텍스트 중심 방식의 혼합을 이루었다.

도입 단계에는 단원의 학습 목표와 단원 주제를 선정한 이유, 학습 지

도를 밝히는 단원 길잡이도 배정하였다. 이로써 단원 학습의 지향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의 분석에서도 강조하였지만 단원의 학습 목표에는 해당 단원을 학습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언어 사용 능력(언어의 다섯 기능), 알아두어야 할 언어 지식이나 문화 지식(지식), 개인성장 면에서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내용(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기존 교재처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거나 단지 문법과 표현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언어의 다섯 가지 기능에 관한 구체적 목표, 의도하는 문화 능력 목표, 성취하고자 하는 태도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 한국 문화 능력, 인성함양을 구체적으로, 지향성 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 4.2. 제재의 선정

앞의 논의에 따라 앞으로 개발할 통합 교재에 수록할 제재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자연스러운 한국어, 한국어의 아름다움, 한국어의 정수,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고급 단계 학습자인 만큼 낮설고 전문적인 글, 문학 작품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특징을 감안해 볼 때, 집필진이 제작한 글보다는 정전성이 높은 한국어 원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국 작품이 아닌 순수한 한국 작품이 선정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한국 문화 능력 신장이라는 일차적 교육 목표와 인성교육 양성이 라는 이차적 교육 목표를 감안해 볼 때, 한국 문화와 인성교육에 관한 제재를 많이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여기서 말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 교통 등의 일상적인 문화가 아닌 한국인의 가치관, 종교, 한국인의 의식 등의 정신문화(성취문화)를 뜻하는 것이다. 한국 정신문화의 하위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에 관한 주제로는 반드시 고급 단계 학습자의 지적 수준에 맞게끔 선정되어야 한다.<sup>32)</sup> 그리고 이들 주제를 반영한 글들은 외국 사람

이 아닌 한국 사람이 쓴 한국어 글이어야 한다.

셋째, 인문 사회에 관한 글도 수록할 수 있는데, 한국 문화 능력 신장, 인성교육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관련된 것, 보편적인 내용을 다룬 글보다는 한국의 인문, 한국의 사회 문화나 문제를 다룬 글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습 활동에서 보편적 사회 문제까지 확대해 나가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넷째, 한국 소설이나 수필, 시 등 문학 제재에 대해 어학교육, 문화교육이나 인성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 문학도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 소설이나 수필, 시 등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특징, 즉 한국 문학 본연의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국 문학의 대표작도 수록해야 한다.<sup>32)</sup> 예컨대 황순원의 <소나기>,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서시>, 고전문학 <춘향전>, <홍길동> 등 한국 대표작으로 뽑히는 작품들을 다뤄야 한다.

다섯째, 소중한 수업 시간을 상대적으로 쉬운 글을 배우는 데 할애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혼자의 노력으로 이해하기 힘든 제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해하기 쉬운 설명문이나 논설문, 실용서보다는 비유적이거나 함축적인 의미가 강한 현대수필, 현대소설, 비평, 고전소설, 시 등을 더 많이 수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물론 설명문, 논설문, 우화, 전기문, 시나리오 등 기타 문종도 수록할 수 있는데, 다만 양적인 비중을 너무 크게 두지 말라는 뜻이다.

여섯째, 언어적 수준이나 문화 내용이 너무 어려운 글이라면 학습자에

---

32) 인성 교육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는 정기철(2001:215-230)에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33) 한국어학과에는 문학 본연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국 문학사'나 '한국 문학 작품 감상'이라는 과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으니 통합 교재에 이런 문학 작품을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학사'나 '문학 작품 감상'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학습자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통합 교재에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을 넣어 가르치지 않을 경우 문학사나 작품 감상을 듣지 않는 일부 학생들은 한국 문학 대표작을 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통합 교재에 한국 문학 대표작을 몇 편정도 수록해야 한다.

게 큰 부담을 안겨 주어 학습 동기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맞게끔 제재를 선정해야 한다. 이는 또한 앞서 말한 '혼자 힘으로 이해하기 힘든 제재', '문학 본연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작'을 선정할 때 제한시키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어려운 제재나 문학 대표작을 선정한다고 해서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선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자의 이해 수준은 학습자가 별 어려움 없이 스스로 제재를 읽고 소화해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혼자 읽고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선생님의 설명이나 도움으로 제재의 내용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예컨대 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묘사하는 황순원의 <소나기>의 경우, 모르는 어휘가 많으나, 문체 자체가 간결한 데다 소설 배경이나 주제,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날개 주석으로 어려운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을 달아 준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김유정의 <봄봄>의 경우, 사투리나 욕 같은 것이 많이 끼어 있어서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기가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 그 많은 사투리와 욕을 배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학습 동기 부여에 큰 지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좀 극단적인 예로 최인훈의 <광장>이나 이상의 <날개>의 경우, 아무리 대표작이라 해도 한국 사람에게도 난해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으므로 수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4.3. 언어 요소의 제시와 기술

개발할 통합 교재에 어떤 언어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제시되고 기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재에 어휘, 문법 외에 한국의 속담, 관용구, 관용표현, 어휘나 속담이나 관용구의 어원, 사자성어,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 등 다양한 언어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풍부한 언어 요소를 배울수록 어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언어 사용 능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둘째, 어휘와 문법, 속단, 관용구 등 언어 요소는 제재 속에서 낱개 형식으로 제시해 두는 것이 좋다. 학습자가 제재를 읽어 나가면서 본문 뒤에 가서 어휘와 문법의 뜻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시로 편하게 확인하게 하여 제재를 읽어 나갈 때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게 된다. 단, 낱개 형식으로 제시된 내용은 그저 한국어 뜻풀이와 중국어 대역일 뿐이다. 어휘와 문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본문 뒤에 삽입해야 한다.

셋째, 어휘와 문법, 관용구, 관용 표현 속담 등 언어 요소를 제시함에 있어서, 한국어 뜻풀이와 중국어 대역을 모두 갖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어 뜻풀이만 볼 때 중국어로 뭐라 표현할지 모를 경우가 있고, 그리고 중국어 대역으로 한다면 한국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오용(誤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명사의 경우 대응되는 중국어가 있으면 대역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어휘와 문법에 대한 해설은 예문과 학습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문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면 관계도 있으므로 3-4개 정도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예문은 단 문장과 대화 두 가지 형식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 문장은 문어체에서 사용하는 예가 되고, 대화문은 일상대화에서 사용하는 예가 된다. 그리고 대화문은 해당 어휘나 문법이 사용되는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용법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 활동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후술하기로 한다.

다섯째, 어휘의 수량과 수준을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조해야 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급 단계 용 어휘 목록을 당장 개발하기는 어려우니 우선 국립국어연구원의 어휘 등급을 활용해 한정적이거나 고급 수준의 어휘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4.4. 학습 활동의 설계

새로 개발할 통합 교재는 기존 텍스트 중심의 교재에서 사용하던 어휘, 문법 중심의 문제 풀이 형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습 활동을 고안할 것

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논의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단 여기서는 지면 관계 상 학습 활동의 개선 방향만을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학습 활동 내용 방안 제시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첫째, 학습 과정, 수업 절차에 입각하여 학습 활동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다. 학습 활동은 제재 뒤에서 집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도입(계획 및 진단)-전개(지도)-정리(내면화와 평가)'라는 수업 절차(학습 과정)에 따라 산재하여 제시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활동, 지도 단계에서는 읽기 활동, 정리 단계에서는 말하기, 쓰기, 읽기, 번역하기 활동이 설계될 수 있다.

도입 단계는 단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단계이다. 따라서 동영상이나 재미있는 듣기 자료를 들려주면 흥미 유발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도 단계는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제재 읽기 활동을 설정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는 다시 읽기 전 활동, 읽기 활동, 읽은 후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정리 단계는 배운 내용을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말하기, 쓰기, 읽기, 번역하기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배정하여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둘째, 학습 활동은 수업 시간 내의 활동과 과외 시간의 활동으로 양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언어공부는 수업 시간에만 제한되지 않고 과외 시간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한 가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주어진 짧은 수업 시간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과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외 시간의 활동으로는 번역하기(문장 번역과 글 번역)<sup>34)</sup>, 다양한 자료 읽기(독서량을 늘릴 목적),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기 등을 고안해 볼 수 있다.

셋째,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의 이념을 반영하도록 학습 활동을 설계한다.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해 각 수업 절차에서 다루는 학습 활동은 반드시 언어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sup>35)</sup>

---

34)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래 '일곱째' 제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35) 언어 기능 통합 학습 활동의 예는 임미성(2002: 17-19)을 참조할 수 있다. 여

넷째,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 한국 문화 능력의 신장, 인성교육,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를 반영하도록 학습 활동을 고안한다. 즉 학습 활동의 내용은 학습자의 사고력, 상상력의 신장, 어감 형성,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심도 있는 내용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습 과정에 따라 각 언어 기능별 활동을 설계한다. 듣기, 말하기, 쓰기 활동을 고안할 때 각각 듣기/말하기/쓰기 전 활동-듣기/말하기/쓰기 활동, 읽기 활동을 고안할 때 읽기 전/읽는 중/ 읽은 후 활동으로 고안하는 것이 학습 과정에 맞는 것이다.

여섯째, 다양한 활동 유형을 설계한다. 학습 활동은 혼자하기 활동에만 집착하는 폐단을 지양하고 짝 활동, 모둠 활동, 발표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일곱째, 어휘와 문법, 관용구, 관용표현, 특정 상황에서의 표현을 포함한 모든 언어적 요소에 관한 학습 활동을 빠짐없이 설계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풀이 형식 위주의 학습 활동을 지양하고, 언어 기능 통합을 위한, 사고력 신장이나 문화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이 고안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어진 상황에서 관련 어휘나 문법을 가지고 말하기, 단원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말하기, 쓰기 활동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언어적 요소를 위한 학습 활동으로 중한 문장 번역 연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어 문장을 주고 주어진 언어적 요소(물론 본문에서 배운 것들임)를 가지고 번역하는 연습이다. 외국어인 한국어를 배우는 데 한국 글을 많이 접하여 언어 창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모국어(중국어)를 활용해서 한국어 표현의 뜻과 요법을 파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지름길이다. 모국어를 상기시켜 한국어 어감 형성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개인적 학습 경험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로 보아 매우 필요한 연습이라 본다. 그 이유는 한국어 표현을 알고 있지만 중국어의 어느 표현을 한국

---

기서 지면 관계상 일일이 제시하지 않겠다.



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 표현과 완전히 대응되는 중국어가 없을 경우, 또 표현 자체를 위한 중국어 번역과 표현이 사용된 문장에 대한 번역이 완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런 어려움이 반드시 뒤따른다. 36)

여덟째, 번역 학습 활동은 위에서 말한 언어 요소를 위한 번역 연습 외에는 글(단문) 번역 연습도 시켜야 한다. 문장 번역이 어휘와 문법 등의 언어 요소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위한 연습이라면 글(단문) 번역은 문장과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도록 하는 구사 능력을 키우는 연습이라 할 수 있다. 중한 번역과 한중 번역이 모두 필요하지만 특히 중한 번역이 중요하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사 한국어 표현을 잘 알고 있어도 중국어의 어느 표현이 이런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째, 어감 형성을 위한 학습 활동이 보완되어야 한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어감 형성을 위한 방법 연구가 미진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송독(誦讀), 독서량 늘리기, 다양한 자료 듣기 등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어감 형성 이론에 입각한 한국어 특징을 감안한 구체적인 방안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5. 결론

---

36) 예를 들면 '다가'라는 문법을 알고 있지만 "喝着喝着酒睡着了"라는 중국어를 전달하는 데 '다가'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做着做着某事就"라는 문형의 문장을 번역할 때 '다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학생들이 중국어의 어느 표현(중국어 패틴)을 한국어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다가' 등의 한국어 표현 의미와 용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바로 이런 번역 연습을 통해 '티를 내면서/티나게' 등의 한국어 표현의 뜻과 용법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번역 연습을 수시로 시행하게 되면 동시에 중한 번역 능력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의 한국어교육은 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아쉽게도 대학교 3, 4학년 학생을 위한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개발 현황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초·중급 교재에만 몰두하다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고급 통합 교재가 필요한가, 통합 교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몇 종의 소위 고급 한국어 교재들을 보면 대체로 읽기 교재로 개발되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교재론 및 통합 교육론에 근거하여 기존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우선 교재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급 단계의 학습의 특징을 밝히고, 이런 고급 단계에서도 통합적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 학과의 교수-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고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통합 교재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은 성격 규정을 교재 분석의 일반적 기준에 반영하여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 분석을 위한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3종 통합 교재를 교재 구성, 제재, 언어 요소, 학습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개발될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를 위한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교재론 및 통합교육론에 근거하여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고급 한국어 교재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 두었다는 점이 의미있는 성과라고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교재의 문제점은 바로 고급 교재의 성격(목표)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목표 인식은 결국 교재 편찬의 방향도 잘못 잡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구자의 실제 현장 경험도 결합시켰기 때문에 현실 적용을 염두에 둔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논의라고 본다. 다만 지면 관계 상 모든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 못한 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지 못하고 제언을 하는 데만 그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향후 교재의 제재나 학습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 개발을 고안한 연구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崔義秀 외, 高級韓國語(上/下), 中國 遼寧民族出版社, 2002.  
何彤梅 외, 進階韓國語(高級), 中國 世界圖書出版社, 2006.  
金長善 외, 新編高級韓國語(上/下), 中國北京大學出版社, 2014. 5.  
金重燮 외, 新標準韓國語(高級1/2), 中國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9.  
牛林杰 외, 大學韓國語(5/6),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2009.  
全龍華, 高級韓國語(上/下), 中國 延邊大學出版社, 2010.  
鮮文大學韓國語教育院, 新標準韓國語(高級1/2), 中國 大連出版社, 2008.  
延邊大學朝鮮-韓國語學院, 高級韓國語(上/下), 中國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10.

### 2. 단행본 및 논문

- 김영선(2006), "한국어 교육 교재의 평가 기준 연구", 한국어교육17. 12-18쪽.  
김인에(2012), "한국어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9-30쪽.  
김정우(2012), "중국의 한국어 고급 교재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35집, 한중인문학 학회. 151-179쪽.  
김현숙(2009), "통합 기능 학습을 위한 교과서 내 과업 연구-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9종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 연(2010), 한중 현·당대 문학교육 비교 연구, 태학사, 436-438쪽.  
남 연(2011),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연구-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학교육학 제35호, 261-265쪽.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60쪽.  
박갑수(2002), "한국어 교재 개발 원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3-36쪽.  
서중학(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에 대한 시고", 울산어문논집 15,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38-41쪽.  
신현재·이재승(1997), "국어과 교육에서의 통합의 범위와 방식", 교수논총13, 59쪽.  
엄 녀(2007), "평가 기준을 통한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5-262쪽.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325-327쪽.

- 이재승(2004), "언어 기능 통합 지도의 배경과 층위", 한국초등국어교육 2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43-166쪽.
- 이재승(2006),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1집, 178-181쪽.
- 이지영(2004),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사적 고찰", 국어교육연구1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03-541쪽.
-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5-217쪽.
- 임미성(2002), "통합적 국어교육을 위한 교과서 구성 방안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21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15-23쪽.
- 정기철(2001),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215~230쪽.
- 정운규(2013),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 기능 통합 과제 유형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31쪽.
- 胡夢好(2013), "중국 내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고급 교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교(2003), "국내 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291-295쪽.
- 鄧明菁(2004), "中學語文閱讀教學中的語中央明祖大學碩士學位論文碩士學位論文, 6-9쪽, 17-25쪽.
- 黃莉萍(2010), "中學語文語感教學探索",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1-39쪽.
- 李旭明(2006), "中學生外語語感能力培養的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論文, 19-21쪽
- 李 楊(1993), 中高級對外漢語教學論, 北京大學出版社, 50쪽.
- 劉 芳(2013), "中學語文語感教學策略", 中央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 17-22쪽.
- 劉珣 외(1997), 對外漢語教學概論,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6쪽.
- 任群英(2003), 論語感及其培養, 中國湖南師範大學碩士論文, 2~7쪽.
- 王松泉·王柏勛·王靜義(2002), 語文教學心理學基礎,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46~47쪽.
- 溫桂松(2012), "對外漢語教學中的語感教學", 黑龍江大學碩士論文, 27-28쪽.
- 徐雲知(2001), "近20年語感及語感教學的發展", 首都師範大學碩士論文, 27-32쪽
- 趙 燕(2004), "語文教學中的語感培養", 華中師範大學碩士論文, 2~10쪽.
- 張 徵(2003), "對語感本質的再認識", 西安外國語學院學報11권 3집, 31~33쪽.
- Brown. H.D(2007), Teaching by Principles, Pearson education, Inc. 286쪽.